

교통편	JR전철 다카마쓰 역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다카마쓰 자동차도로·다카마쓰 주오 IC 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사누키하마카이도 도로·후생연금회관·북 쪽으로 들어감) 고토덴 버스 아사히마치선·아사히마치 2 초메 하차, 약 3분
영업 시간	오전 9:00~오후 5:30
주차장	무료 대주차장 완비
휴관일	연말연시
입장료	어른 1,200엔 중학교·고등학생 800엔 초등학생 600엔
단체 할인	있음

다카마쓰 헤이케 이야기 역사관

〒765-0065 香川県高松市朝日町3丁目6番38号
TEL 087-823-8400 FAX 087-823-8837
<http://www.heike-rekishikan.jp/>

헤이케 이야기는 가마쿠라 시대에 성립되었다고 전해지는 헤이케 가문의 영화와 몰락의 과정을 그린 전쟁소설입니다. 이야기는 모두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나누어서 3부의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권력을 손에 쥔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중심이 되면서 헤이케 가문이 번성하는 모습. 제2부는 헤이케 가문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기소노 요시나카'가 헤이케군을 상대로 일으킨 전투. 그리고, 제3부는 헤이케 가문의 멸망과 전투 후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상을 그린 소설입니다. 기존의 '헤이케 이야기'에는 12권 뒤에 이야기를 매듭 짓는 '간조노마키'가 1권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노우라 전투에서 목숨을 건진 겐페이몬인을 만나기 위해 고시라가와 상황이 오히려 방문하여 지난날을 회고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헤이케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호겐·헤이지 전란에서 헤이케 가문의 멸망까지는 불과 30년, 헤이케 가문의 영화는 덧없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헤이케 가문이 멸망한 뒤에도 가마쿠라 시대에서도 에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사중심의 정치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헤이케 가문과 겐지 가문이 벌인 겐페이 전투의 무대 야시마 근처에 개관한 것이 바로 가가와현의 새로운 관광지 '헤이케 이야기 역사관'입니다. 이는 단지 겐페이 전투의 한 장면만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큰 역사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장소입니다. 관내에서는 전쟁소설의 최고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헤이케 이야기'에 묘사된 전투 장면 등 헤이케 가문이 걸어 온 흥망성쇠의 과정을 납인형 약260개로 생생하게 모두 17가지 장면을 생동감 넘치게 재현한 '눈으로 보는 역사 이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설치되어 있는 '헤이케 이야기의 여자들' 패널 전시에서는 헤이케 이야기 속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아야만 했던 13명의 여성들의 인생역정을 소설가 나가이 미치코가 절묘한 필치로 묘사하였습니다. 납인형의 생생한 표정과 역사의 다양한 장면을 만날 수 있어,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현장감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800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현대에 생생하게 재현한다...

高松 平家物語歴史館

다카마쓰 헤이케 이야기 역사관
일본 최대의 납인형관

지금 다시 볼 수 있는 헤이케 가문의 흥망성쇠에 관한 입체적인 역사 무대.

헤이케 이야기에 묘사된 전투 모습 등 역사의 한 장면을 약 260개의 납인형을 사용하여 재현한 '눈으로 보는 역사이야기'. 회도애락 표정이 잘 묘사된 납인형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모두 17가지 장면을 재현한 무대를 돌아보면서 헤이케 가문의 역사와 문화를 더듬어 보는 이곳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체험.



제13경 '안토쿠 천황, 바다에 몸을 던지다'

야시마의 전투에서 패배한 헤이케 가문은 세토 내해에서 서쪽으로 달아나 간몬해협 부근의 히코시마 섬에 다시 수군을 결집하였습니다. 1185년 3월 24일 새벽, 마침내 단노우라 지역에서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헤이케 군단이 우세한 듯 했으나 시코쿠와 규슈 지방에서 집결한 호족들이 배반하여 겐지 가문에 가세한 것이 계기가 되어 겐지군은 일거에 공격을 감행하여 헤이케군은 괴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 어린 안토쿠 천황은 니이노야마와 함께 바다에 몸을 던져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제2경 '헤이케 가문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헤이케 가문의 수장 '다이랴노 기요모리'는 호겐·헤이지 전란 이후 빠른 속도로 출세가도를 달려 불과 8년만에 평범한 태정관 관리였던 참의(參議)에서 태정대신(太政大臣)이라는 최고 관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동시에 헤이케 가문의 사람들도 고위고관에 임명되어 무력으로 집권하였습니다. 또한 아키노쿠니 지방 등 30여개 지방의 영주로 임명되어 일본 전국에서 절반 이상의 토지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바야흐로 헤이케 가문의 천하가 되었습니다.

병설/시코쿠 지방의 위인들

시코쿠 지방이 낳은 위인, 저명인사가 총집합!

하이쿠 시인 '마사오카 시키'와 작가 '기쿠치 간', 에도막부 말기에 활약했던 '사카모토 료마' 등 시코쿠 지방 출신의 위인과 저명인사들의 납인형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듯한 표정은 무심코 악수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다. 납인형 앞에는 각각의 소개문을 읽을 수 있는데, 마치 그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각계의 위인과 저명인사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헤아리면서 감상하는 것도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특별 전시 구카이(고보 대사)

정치·사회

- 오하라 마사요시 (정치가)
- 니시노 스에히로 (정치가)
- 미키 부키치 (정치가)
- 하라리 다로 (정치가)
- 나리타 도모미 (정치가)
- 이타가키 다이스케 (정치가)
- 요시다 시게루 (정치가)
- 미키 다케오 (정치가)
- 하마구치 오사치 (군인)
- 아키야마 사네유키 (군인)
- 야마시타 도모유키 (군인)
- 사카모토 료마 (에도막부 말기 지사)
- 나카오카 신타로 (에도막부 말기 지사)
- 마쓰다이라 요리나가 (백작·귀족원 의장)

문화인·학자

- 마사오카 시키 (하이쿠 시인)
- 다카하마 교시 (하이쿠 시인)
- 아베 요시시게 (학자)
- 기쿠치 간 (소설가)
- 난바라 시게루 (도쿄대학 총장)
- 이노쿠마 겐이치로 (화가)
- 테라다 도라히코 (학자)
- 마키노 도미타로 (학자)
- 야스오카 쇼타로 (소설가)

스포츠·예능

- 후지타 모토시 (프로야구)
- 미즈하라 시게루 (프로야구)
- 나카니시 후토시 (프로야구)
- 가사기 시즈코 (가수)
- 다케하라 한 (무용가)

그 밖에

- 마나베 히로시 (일러스트레이터)
- 니노미야 주하치 (발명가)
- 오코소 요시노리 (실업가)
- 가가와 도요히코 (실업가)
- 나카에 조민 (사상가)
- 고토쿠 슈스이 (사상가)
- 하라 야스사부로 (실업가)
- 이와사키 야타로 (실업가)
- 나카노하마 만지로 (에도막부 말기)
- 요코야마 류이치 (만화가)
- 모라이스 (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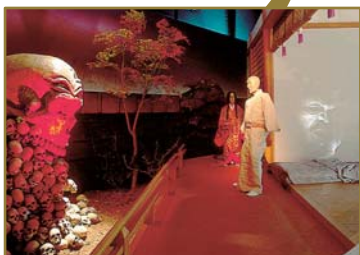


이타가키 다이스케 오하라 마사요시 (정치가) (정치가)
사카모토 료마 (에도막부 말기 지사)



제17경 '비파법사(로봇)'

심금을 울리는 비파의 음색과 함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 어린 여조. 헤이케 이야기는 비파법사가 이야기와 비파를 통해 생동감 넘치게 이야기하는 특수한 문학으로서 전승되어 왔습니다. 무로마치 시대 초기의 교토에는 수백명의 비파법사가 있었는데 많은 민중들에게 제행무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작위와 성립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여 현재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10경 '이치노타니 전투'

1183년 '기소노 요시나카'의 군세가 교토 부근까지 접근하자 헤이케 가문은 어린 안토쿠 천황과 함께 교토를 떠났습니다. 규슈 지방의 다자이후를 거쳐 시코쿠의 사누키지방 야시마로 달아난 헤이케 가문은 마침내 천도한 후쿠하라로 되돌아와 이치노타니에 견고한 성곽을 쌓고 많은 호족세력을 규합하였습니다. 이듬해, 겐지 가문은 이치노타니성에 공격을 감행. 헤이케 가문도 필사적으로 항거했으나 완전히 패배하여 다시 야시마로 달아났습니다.



제6경 '사람을 괴롭히는 영혼'

1180년 6월, '다이랴노 기요모리'는 후쿠하라로 천도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그의 친실 벽에는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거나 정원은에는 무수한 해골들이 하나의 거대한 해골로 변해서 나타나는 등 기괴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수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헤이케 가문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댓가이며 헤이케 가문이 멸망하려는 징조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12경 '나스노 요이치, 부채의 중심점을 명증시키다'

義経 Yoshitsune
1185년 2월, '미나모토노 요시쓰네'는 사누키 지방으로 건너가 배후에서 야시마를 급습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헤이케군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쳤으나 겐지군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고 급격에 대항하여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전투가 일단락되었을 때 출연히 장대에 부채를 세운 작은 배가 해상에 출현. '미나모토노 요시쓰네'의 명령을 받은 활의 명수 '나스노 요이치'가 부채를 정확하게 명증시켜 떨어뜨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양쪽 군단의 병사들은 누구나 할 것없이 감탄의 환성을 지르며 요이치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